

김은정 선생님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에 대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전시장을 개장하면서 패널을 다시 설치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도슨트들의 업무 중에 이런 일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패널이 철재 봉에서 빠진 것, 빠질 것들은 모두 교체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패널 전체가 빠진 것을 보니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지 염려가 되는군요.

몇 가지 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1)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기현 선생님, 김승범, 정이삭, 신은기선생님

2) 지금까지 사고 일지를 (설치직후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공유 드라이브에 전시장설치 파일을 만들고, 사건 사진을 올리고,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 일자, 사건내용, 조치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이것이 정리되면 뷰크리에이터에 우리 추진팀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책임 추궁이나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팩트를 정확히 전달하고 해당사의 입장을 듣는 것이 앞으로의 정산과 백서제작을 위해 대비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베니스의 여독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일찍 찾아온 열기 때문이기도 한 듯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김성홍드림